

## 낙타와 낙타모(Camel and Camel wool)

낙타는 등에 혹이 하나 있는 단봉종과 혹이 두 개 있는 쌍봉종의 두 가지가 있다. 단봉종은 One humped camel 혹은 Dromedary라고 하며, Camelus Dromedarius-Arabian이라는 학명을 갖고 있다. 쌍봉종은 Two humped camel 혹은 Bactrian이라고 하며, Camelus Bactrianus-Eastern Asiatic Camel 이란 학명을 갖고 있다.

단봉종 낙타는 아라비아에서부터 아프리카에 걸쳐 서식하고 있는데, 이 낙타의 털은 얼마 되지 않고 굵기만 하고 짧아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한편 낙타모를 산출하는 것은 쌍봉낙타다. 이 쌍봉낙타의 서식지는 러시아 남방, 중국의 서북부를 포함하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다. 원래 낙타의 목적은 사막지대의 화물 운송용이지만, 부산물로서의 털의 가치는 크다.

이 낙타의 수명은 약 60년으로서 성장이 느리며, 5년이 자라야 어미 축에 들어간다. 이 낙타의 몸에 붙어 있는 털은 면모와 자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모는 길이가 25 ~ 125 mm, 굵기가 15 ~ 25  $\mu\text{m}$ 의 가늘고,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성이 좋은 것이며, 자모는 길이가 125 ~ 300 mm, 굵기가 25 ~ 120  $\mu\text{m}$ 의 흑갈색의 털로 덮여 있다.

낙타의 울은 1년에 한번 늦봄에 빠져 나오기 때문에 이 때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울을 수집한다. 양처럼 전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 울에는 지방분이 4 ~ 5 %, 모래가 15 ~ 20 % 섞여 있기 때문에 세척하고 나면 수율은 75 ~ 80 %가 된다.

이 낙타의 울은 몸에서 빠져 나올 때에 섬유 하나하나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방울처럼 둥글게 뭉치면서 커다랗게 덩어리가 되는데, 늦봄 사막을 가는 대상들 중에서 한 사람은 낙타 몸에 둥글게 뭉쳐서 매달려 있는 낙타 울을 자루에 수모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다소 늦어지면, 사막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낙타모에 모래가 묻게 되는 것이다.

근래 중국에서는 이 낙타 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울이 떨어지기 전에 손으로 울을 잡아 당겨서 수모함으로써 모래의 혼입을 방지시킨다.

낙타 울의 주산지는 중국과 외몽고가 두드러지며, 그 외에는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낙타 울의 세계 생산량은 확실하지 않으나, 대략 연간 140만 kg정도라고 보고 있으며, 이 낙타모의 주 수입국은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이며, 독일에서는 이것을 정모하여 top을 만든 다음 재수출한다.

정제된 낙타 울은 굵기에 따라 Fine, Medium, Coarse로 분류되며, 색상별로는 백색이 최고지만, 이것은 극히 드물다. 다음은 자모의 혼입이 적은 것일수록 그 값이 비싸다. 낙타모의 특징은 염색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단점이 되어 밝은 브라운색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으나, 근래 미국에서 이에 대한 염색법이 개발되어 다양한 색상의 낙타 울 제품이 나오게 되었다.

이 근래 낙타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낙타 울로 제품을 만들어 입으면 혈관을 확장시켜 혈행을 좋게 하며, 류머티즘의 질병을 예방하여 주고, 생리작용을 좋게 하여 주는 힐링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섬유의 강도는 일반 양모보다는 산양의 털이 더 강하고, 이 산양의 털보다도 더 강한 것이 낙타모라고 하였다. 보통 양모제품보다도 훨씬 우수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우주선 승무원들의 옷은 모두 낙타모로 만든다고 한다. ♣ (공석봉)



<One humped camel>



<Two humped camel>